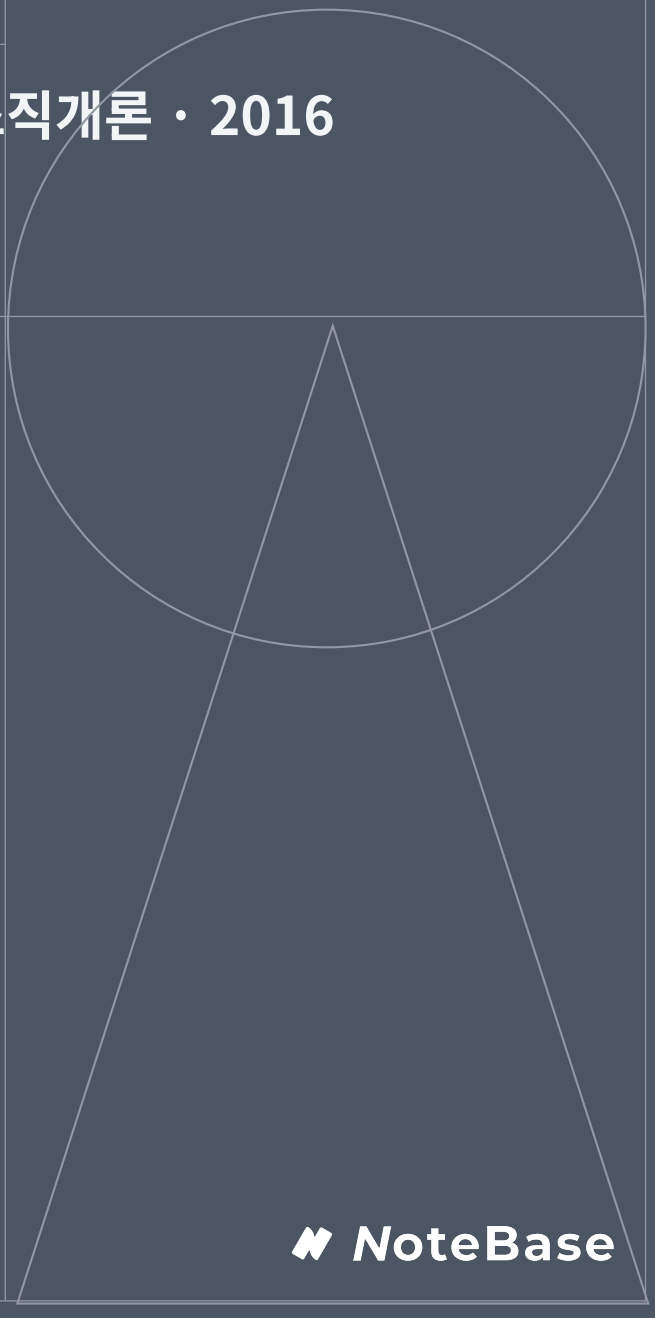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16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16

문 1. 분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리스(W.T. Harris)의 분류법은 분류기호와 도서기호를 서가배열과 목록배열에 사용한 분류법으로 이후의 서가분류법에 영향을 주었다.

② 카터(C.A. Cutter)의 전개분류법은 꽁트(A. Comte)의 학문분류체계에 영향을 받았으며, 배열순서는 일반적으로 주제의 진화순으로 되어 있다.

③ 브리스(H.E. Bliss)의 서지분류법은 5개의 공통패싯을 이용한 분석합성식 원리를 수용하였으며, 콜론분류법에 영향을 주었다.

④ 에드워즈(E. Edwards)의 분류법은 근대 영국 공공도서관의 대표적인 분류법으로 신학, 의학, 서지 등 12개의 주류로 구분되어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12개의 주류'는 **6개의 주류**로 고쳐야 한다. 에드워즈 분류법은 신학·철학·역사·정치 및 상업·과학 및 예술·문학 및 잡저로 나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해리스 분류법은 주제를 나타내는 분류기호와 같은 주제 안에서 개별 도서를 구별하는 도서기호를 사용하여 서가와 목록을 배열했다. **책의 배열과 목록의 배열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이후 서가분류법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② O: 카터의 전개분류법은 꽁트의 학문분류체계에서 영향을 받아 **주제의 진화순**을 배열 원리로 삼았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무생물에서 생물로, 식물에서 동물로 이어지는 순서를 반영한다.

③ O: 브리스의 서지분류법은 형식·시대·장소·언어·민족의 5개 공통패싯을 활용하는 분석합성식 원리를 수용했다. 패싯은 주제를 나누어 보는 측면으로, 주제에 장소나 시대 등의 기호를 결합하면 복합적인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측면을 결합하는 원리**와 브리스의 분류 이론은 랑가나단의 콜론분류법과 분석합성식 분류 이론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다.

④ X: 에드워즈 분류법은 근대 영국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관련된 분류법이지만, 주류를 12개로 나누지는 않았다. 신학·철학·역사·정치 및 상업·과학 및 예술·문학 및 잡저의 **6개 주류**로 구성되므로, '신학, 의학, 서지 등 12개의 주류'라는 설명을 이 구분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2.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에 따라 구분할 때, 경부(經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류(詩類)

② 악류(樂類)

③ 춘추류(春秋類)

④ 유가류(儒家類)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유가류(儒家類)는 경부가 아니라 **자부(子部)**에 속한다. 유교와 관련된 책이라도 경전과 그 해석을 다루는 부류와 유가의 학설을 다루는 부류는 구별한다.

공통 해설

『사고전서총목제요』의 사부분류법은 자료를 경부·사부·자부·집부로 나눈다. 이 가운데 경부는 **유교 경전과 그 주석·연구 및 관련 학문**을 모은 부문이다. 시류는 『시경』과 그 해석에 관한 책을, 춘추류는 『춘추』와 그 해석에 관한 책을 다루며, 악류도 경학과 관련된 음악 문헌의 부류로 경부에 포함된다. 따라서 시류·악류·춘추류는 모두 경부의 하위 부류이다.

유가류는 유가의 사상과 학설에 관한 저술을 모은 부류로, 여러 학파의 저술 등을 분류하는 **자부의 하위 부류**이다. '유교와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경부에 넣는 것은 아니다. 경부에 속하지 않는 부류를 찾는 이 문항에서는 유가류가 해당한다.

NoteBase

문 3. 다음은 KDC 제6판의 분류규정을 적용한 예시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 철학에 미친 유교의 영향』
→ '유교'가 아닌 '한국 철학'에 분류
ㄴ. 『종교사의 기원으로서의 신화』
→ '신화'가 아닌 '종교사'에 분류
ㄷ. 『영어 학습을 위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한영 대역서)』 → '영어'가 아닌 '영문학'에 분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ㄷ의 한영 대역서는 **영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므로, 원작의 문학 분야가 아니라 **학습 대상 언어인 영어**에 분류한다.

보기별 해설

ㄱ. O: 두 주제 사이의 영향관계를 다룬 자료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은 주제**에 분류한다. 『한국 철학에 미친 유교의 영향』에서는 유교가 영향을 주고 한국 철학이 영향을 받으므로, 유교가 아니라 한국 철학에 분류한다.

ㄴ. O: 인과관계를 다룬 자료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해당하는 주제**에 분류한다. 『종교사의 기원으로서의 신화』는 신화를 종교사의 기원, 즉 원인으로 다루므로, 결과에 해당하는 종교사에 분류한다.

ㄷ. X: 일반적인 번역서는 원작과 같은 주제에 분류하지만, **어학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대역서**는 학습할 언어에 분류한다. 이 자료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담고 있어도 영어 학습을 위해 간행된 한영 대역서이므로, 영문학이 아니라 영어에 분류한다.

옳은 보기는 ㄱ과 ㄴ이며, 이를 묶은 선택지는 ①이다.

NoteBase

문 4. KDC가 제5판에서 제6판으로 개정되면서 변경된 분류항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분류항목	제5판	제6판
ㄱ.	건축사	610.9	540.09
ㄴ.	통계학	310	413
ㄷ.	양극지방	970	969
ㄹ.	국립도서관	026.2	026.1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국립도서관은 KDC 제5판과 제6판에서 모두 **026.1**에 분류된다. 따라서 ㄹ의 '026.2 → 026.1'은 제6판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이 아니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건축사는 제5판의 610.9에서 제6판의 **540.09로 이동**했다. 제5판에서 나뉘어 있던 540 '건축공학'과 610 '건축술'을 제6판에서 540 '건축, 건축학'으로 통합하면서 건축사도 함께 옮겼다.

ㄴ. O: 통계학은 제5판의 310에서 제6판의 **413으로 이동**했다. 제6판에서는 통계이론과 통계분석 등 통계학 관련 내용을 413에 모으고, 310은 '통계자료'로 구분하여 통계자료집과 통계데이터 등을 분류한다.

ㄷ. O: 양극지방은 제5판의 970에서 제6판의 **969로 이동**했다. 제6판에서 오세아니아와 양극지방을 960 아래로 통합했기 때문에 양극지방은 그 하위 항목인 969에 배치되고, 기존의 970은 미사용 기호가 되었다.

ㄹ. X: 국립도서관의 분류번호는 **제5판과 제6판 모두 026.1**이다. 제5판의 번호를 026.2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으며, 제6판에서 026.2에서 026.1로 옮긴 것이 아니다.

변경 내용이 옳은 보기는 ㄱ·ㄴ·ㄷ이며, ③의 조합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5. 다음은 DDC 제23판 본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보조표로 옳은 것은?

746.7 Rugs
.751-.758 Styles from specific Asian countries and localities other than southeast Asia
Add to base number 746.75 the numbers following -5 in notation 51-58 from ( ), e.g., Chinese rugs 746.751

① Table 2
② Table 4
③ Table 5
④ Table 6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제시문은 양탄자의 양식을 **아시아의 국가·지역별**로 세분하는 지시이다. 국가·지역을 나타내는 기호는 지역구분표인 **Table 2**에서 가져온다.

공통 해설

DDC에서 Table 2는 국가·지역을 나타내는 기호를 제공하는 보조표이다. 제시문의 'specific Asian countries and localities'는 특정 아시아 국가와 지역을 뜻하므로, 괄호에는 **지역구분표인 Table 2**가 들어간다. 이 문항은 국가·지역 기호의 출처를 묻기 때문에 다른 보조표를 선택할 수 없다.

첨가 지시는 Table 2의 기호 51–58에서 **5 다음에 오는 숫자만** 기본번호 746.75 뒤에 붙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지역기호는 -51이므로 5 다음의 1을 가져와 746.75 뒤에 붙이면 746.751이 된다. 이는 제시된 'Chinese rugs 746.751'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6. 다음은 KDC 제6판 본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에 들어갈 조기표로 옳은 것은?

290 기타 제종교 Other religions
291 아시아
.1 한국
.2-.9 기타 아시아 각국
발상국에 따라 (㉠)-12-19와 같이 세분한다.

362 헌법 Constitutional law
362.001-.009는 (㉡)에 따라 세분한다.
예: 헌법판례 362.0023
.01-.07 각국헌법
.11 한국헌법

718 방언(사투리) Dialect
.1-.9 각 지방의 방언
(㉢)-111-1199와 같이 세분한다.
예: 제주도 방언 718.99

790 기타 제어 Other languages
별법: 도서관에 따라 각 언어에 대해 (㉣)을 적용할 수 있다.
792 인도-유럽어족
.1 그리스어
.2 라틴어

① ㉠ - 종교공통구분
② ㉡ - 표준구분
③ ㉢ - 언어공통구분
④ ㉣ - 국어구분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헌법이라는 주제를 판례 등 자료의 형식에 따라 세분하는 데에는 **표준구분**을 적용한다. 제시된 362.001~362.009는 이러한 세분을 위한 범위이며, 헌법판례 362.0023이 그 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에는 **지역구분**이 들어간다. '발상국에 따라'라는 지시는 종교가 생겨난 국가를 기준으로 나눈다는 뜻이며, -12~-19는 아시아 각국에 대응하는 지역구분 기호이다. 종교공통구분은 교리·경전·종파 등 여러 종교에 공통된 측면을 구분할 때 사용한다.

② O: ㉡에는 표준구분이 들어간다. 표준구분은 주제를 자료의 형식이나 취급 방식 등에 따라 세분하는 조기표이다. 헌법 아래의 362.001~362.009는 본표의 지시에 따라 표준구분을 적용하는 범위이며, **헌법판례 362.0023**은 그 적용 사례이다.

③ X: ㉢에는 **지역구분**이 들어간다. 여기서는 방언이라는 언어적 측면을 다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어느 지방 방언인지 구분한다. 따라서 지역구분의 -111~-1199를 참조하며, 제시된 제주도 방언의 기호는 718.99이다.

④ X: ㉣에는 **언어공통구분**이 들어간다. 기타 제어에 속하는 각 언어를 사전·문법·방언 등 공통된 측면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별법이다. 국어구분은 한국어·중국어·영어 등 언어 자체를 구별하는 조기표이므로, 각 언어 내부의 공통된 측면을 나누는 이 지시와 다르다.

NoteBase

문 7. DDC 제23판의 분류기호에 따를 때, 해당 주제와 분류기호의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독일어로 된 수필(2인 이상 저자 작품) → 834
ㄴ. 영어로 된 미국소설(2인 이상 저자 작품) → 823
ㄷ. 스페인어로 된 서간문(2인 이상 저자 작품) → 856
ㄹ. 고대영어로 된 문학작품(2인 이상 저자 작품) → 829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DDC는 영어로 쓰인 문학이라도 **미국문학과 영어문학을 구분**한다. 영어로 된 미국소설은 823이 아니라 **813**에 분류한다.

보기별 해설

각 보기는 모두 2인 이상 저자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언어·문학권과 문학 형식이 제시된 분류기호에 맞는지 대조한다.

ㄱ. O: 독일어 수필의 분류기호는 **834**이다. 830대의 독일문학에서 수필에 해당하는 기호이므로, 독일어로 된 수필과 834의 연결은 일치한다.

ㄴ. X: 영어로 된 미국소설의 분류기호는 **813**이다. 810은 영어로 된 미국문학이며, 그 아래에서 소설은 813으로 구분한다. 823은 영어소설의 기호이므로, 제시된 823을 813으로 고쳐야 한다.

ㄷ. X: 스페인어 서간문의 분류기호는 **866**이다. 860대의 스페인문학에서 서간문은 866으로 구분한다. 제시된 856은 이탈리아어 서간문의 기호이므로, 866으로 고쳐야 한다.

ㄹ. O: **고대영어 문학은 829**에 분류한다. 고대영어는 앵글로색슨어라고도 하며, 820대의 영어·고대영어 문학에서 별도로 구분된다. 따라서 고대영어로 된 문학작품과 829의 연결은 일치한다.

옳게 연결된 보기는 ㄱ과 ㄹ이므로, 이 둘을 묶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8. 다음의 주류(main classes)기호 아래에 세분되어 있는 KDC와 DDC의 분류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류: 300, KDC 제6판: 통계자료, DDC 제23판: General management

② 주류: 400, KDC 제6판: 기상학, DDC 제23판: Romance languages

③ 주류: 500, KDC 제6판: 제조업, DDC 제23판: Earth sciences

④ 주류: 600, KDC 제6판: 공예, DDC 제23판: Medicine and health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DDC 제23판의 General management(일반경영)는 **658**로, **600 기술과학** 아래에 속한다. KDC 제6판의 통계자료는 310이므로 300 사회과학 아래에 속하지만, General management를 같은 300대에 연결한 부분은 잘못이다.

선지별 해설

주류는 지식 분야를 크게 나눈 최상위 분류이다. 이 문항에서는 각 항목의 분류기호가 제시된 주류의 100단위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KDC와 DDC는 같은 주류기호에 서로 다른 분야를 배치할 수 있다.

① X: KDC 제6판의 통계자료는 310으로, 300 사회과학의 하위 항목이다. 그러나 DDC 제23판의 General management(일반경영)는 **658로서 600 기술과학의 하위 항목**이다. 따라서 DDC 항목을 300에 연결한 부분을 600에 속하는 것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KDC 제6판의 기상학은 453 기상학·기후학에 해당하여 **400 자연과학** 아래에 속한다. DDC 제23판의 Romance languages(로망스어)는 **400 언어** 아래에 속한다. 같은 400이라는 기호를 사용하더라도 두 분류법의 주류 명칭과 분류 내용은 다르다.

③ O: KDC 제6판의 제조업은 580으로 **500 기술과학** 아래에 속한다. DDC 제23판의 Earth sciences(지구과학)는 550으로 **500 자연과학** 아래에 속한다. 두 항목 모두 각 분류법에서 500대에 배치된다.

④ O: KDC 제6판의 공예는 630으로 **600 예술** 아래에 속한다. DDC 제23판의 Medicine and health(의학 및 건강)는 610으로 **600 기술과학** 아래에 속한다. 같은 600대라도 KDC는 예술 분야를, DDC는 기술과학 분야를 배치한다.

NoteBase

문 9. 국제십진분류법(UD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완전판, 중간판, 간략판, 특정 주제판, CD-ROM, 웹버전 등으로 출시되고 있어 선택의 여지가 많아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② 서가배열을 위한 분류보다는 서지에 수록될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분류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되었다.

③ 분류기호를 부여한 후 이를 배열하기 위한 순서(filing order)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④ 기본주제의 배치원리는 암페르(A.M. Ampere)의 학문배열을 따르며, 주류 배열 순서를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순으로 배정하였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암페르의 학문배열'과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순'이라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UDC는 **듀이십진분류법(DDC)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하며, 철학·종교·사회과학을 자연과학보다 앞에 배치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UDC는 수록 범위와 상세 수준에 따라 완전판·중간판·간략판·특정 주제판 등으로, 제공 매체에 따라 인쇄본·CD-ROM·웹버전 등으로 발행되어 왔다. 이용 기관은 **필요한 분류의 상세 수준과 이용 환경**에 맞는 판을 선택할 수 있다.

② O: UDC는 세계의 출판물을 망라하는 서지의 항목을 주제별로 조직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책을 서가에 놓을 위치만 정하기보다 **서지에 수록된 정보의 세부 주제와 주제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본 분류기호에 보조기호 등을 결합하여 복합적인 주제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③ O: UDC는 분류기호를 부여하는 규칙과 함께, 부여된 기호들을 어떤 순서로 놓을 것인지 정하는 **배열순서(filing order)**를 제시한다. 숫자는 소수식으로 배열하므로 61의 하위 분류인 611부터 619까지를 배열한 뒤 62로 넘어간다. 또한 여러 보조기호와 연결기호가 쓰이므로 이들을 포함한 분류기호의 배열에도 정해진 규칙이 필요하다.

④ X: UDC의 기본주제 배열은 암페르의 학문배열을 따른 것이 아니라 **DDC의 기본 틀을 계승**한 것이다. 주류에는 1 철학·심리학, 2 종교·신학, 3 사회과학, 5 수학·자연과학, 6 응용과학 등이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자연과학을 먼저 놓고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뒤에 둔다는 설명도 실제 배열과 다르다.

NoteBase

문 10. 다음은 『Cutter-Sanborn Three-Figure Author Table』의 일부분이다. 이 표를 적용하여 Robert Perry가 지은 『Public Library, third edition』의 도서기호로 옳은 것은?

Perry	462	Robert	639
Perry, G.	463	Robert, G.	641
Perry, M.	464	Robert, M.	642
Perry, S.	465	Roberts	643
Pers	466	Roberts, F.	644

① P464-3

② P464p3

③ R642-3

④ R642p3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Robert Perry는 성을 앞세운 'Perry, Robert'로 찾아 **P464**를 부여한다. 여기에 서명 Public Library의 첫 글자를 소문자로 쓴 **p**와 제3판을 나타내는 3을 붙인다.

NoteBase

구성 요소별 해설

저자기호: Robert Perry에서 성은 Perry이고 이름은 Robert이므로 'Perry, Robert'를 기준으로 찾는다. 성의 첫 글자 P를 대문자로 쓰고, 표에서 해당 이름이 들어갈 위치의 숫자를 붙인다. Robert의 첫 글자 R은 M과 S 사이이므로 'Perry, Robert'는 'Perry, M. 464'와 'Perry, S. 465' 사이에 놓인다.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이 없으면 **알파벳순으로 바로 앞 항목의 숫자**를 적용하므로 저자기호는 P464이다. 이름 Robert를 성으로 보아 R642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저작기호: 같은 저자의 저작을 구별하기 위해 서명의 첫 글자를 소문자로 붙인다. 이 책의 서명은 Public Library이므로 **Public의 첫 글자 p**를 저자기호 뒤에 붙여 P464p로 나타낸다.

판차기호: 'third edition'은 제3판이라는 뜻이므로 저작기호 뒤에 **판차를 나타내는 숫자 3**을 붙인다. 이 문제에서 3은 권차가 아니라 판차이므로 P464-3처럼 서명에 따른 저작기호 p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저자기호 P464, 저작기호 p, 판차기호 3을 결합한 도서기호는 P464p3이며,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1. 주요 목록규칙(편목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목록규칙 제4판은 기본표목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ㄴ. 박봉석의 조선동서편목규칙은 국제적 추세를 수용하여 저자명목록을 기본목록으로 하고 있다.
ㄷ. C.A. Cutter의 사전체목록규칙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조한 규칙으로서 이후의 목록규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ㄹ.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는 IFLA의 FRBR과 FRAD의 개념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ㄴ의 조선동서편목규칙은 저자명보다 **서명을 중심으로 기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당시 국제적으로 보편화되던 저자명주기입 방식을 그대로 수용한 규칙으로 보면 안 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한국목록규칙 제4판은 **기본표목과 통일표목의 개념을 배제**했다. 기본표목은 여러 접근점 중 기본이 되는 표목이고, 통일표목은 같은 대상의 여러 명칭 중 대표 형식으로 정한 표목이다. 제4판은 표목의 선정과 형식을 규정하는 대신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같은 대상의 서로 다른 명칭은 연결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취했다.

ㄴ. X: 박봉석의 조선동서편목규칙은 저자명주기입이 아니라 **서명주기입**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책의 제목인 서명을 중심으로 목록을 기입하는 방식이다. 당시 영미계의 저자명주기입이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었지만, 동양서는 저자명보다 서명으로 자료를 식별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국제적 추세를 수용하여 저자명목록을 기본목록으로 한다'는 설명은 서명 중심의 기입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고쳐야 한다.

ㄷ. O: C.A. Cutter의 사전체목록규칙은 **편목자의 편의보다 이용자의 편의**를 우선했다. 이용자가 알고 있는 저자명·서명·주제를 통해 책을 찾고,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확인하며, 적절한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목록의 목적을 제시했다. 이러한 이용자 중심의 관점과 목록의 기능에 대한 원칙은 이후 목록규칙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ㄹ. O: RDA는 개발 당시 IFLA의 **FRBR과 FRAD 개념모형**을 기반으로 삼았다. FRBR은 서지레코드의 기능요건을 다루며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 등의 개체와 관계를 제시하고, FRAD는 전거데이터의 기능요건을 다룬다. RDA는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자원의 속성과 관계를 기술하고 접근점을 구성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옳은 보기는 ㄱ·ㄷ·ㄹ이며,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2. 서지적 관계유형에서 틸렛(B. Tillett)이 주장한 파생관계(derivative relationships)에 해당하는 것은?

① 개정판, 번역서
② 영인본, 증보판
③ 해설집, 서평
④ 요약집, 색인집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파생관계는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이나 표현을 변형한 자료** 사이의 관계이다. 개정판은 기존 내용을 수정하고 번역서는 표현 언어를 바꾸므로 이에 해당한다.

공통 해설

틸렛의 파생관계는 원자료를 바탕으로 수정·번역·확장·축약 등 변형을 가한 자료와 원자료 사이의 관계이다. 판단 기준은 원자료와 단순히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원자료의 내용이나 표현을 변형했는가**이다. 각 선택지에 제시된 두 자료가 모두 이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판은 기존 내용을 수정한 자료이고, 번역서는 기존 내용을 다른 언어로 표현한 자료이므로 둘 다 파생관계에 해당한다. 증보판처럼 내용을 보충하거나 요약집처럼 내용을 줄인 경우도 원자료를 변형한 것이므로 파생관계에 포함된다.

반면 영인본은 원자료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므로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집·서평은 원자료 자체를 고쳐 표현한 것이 아니라 원자료를 설명하거나 평가한 자료이다. 색인집도 원자료의 내용을 변형해 제시하기보다 관련 항목의 위치를 찾아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영인본, 증보판'과 '요약집, 색인집'은 각각 한 자료만 파생관계에 해당하며, '해설집, 서평'은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3. 주제명표목표의 '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참조'는 이용자가 사용한 탐색어로부터 주제명표목표에서 선정한 표목으로 안내하고 관련 표목 간을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② '보라참조'는 표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주제명에서 채택된 주제명표목으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③ '도보라참조'는 표목으로 채택된 주제명을 채택되지 않은 주제명으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④ '일반참조'는 개별 표목을 지시하는 참조와는 달리, 일단의 표목이나 범주를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도보라참조는 **채택된 주제명표목 사이**를 연결하여 관련 주제로 탐색을 넓혀 준다. ③의 '채택되지 않은 주제명으로 연결'은 '관련된 다른 채택 주제명표목으로 연결'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참조는 이용자가 입력한 탐색어와 자료를 조직하는 데 사용하는 주제명표목 사이를 이어 주고, 관련된 표목으로도 안내한다. 즉 **채택 표목으로의 안내와 관련 표목 간의 연결**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찾도록 돕는다.

② O: 보라참조는 **채택되지 않은 주제명 → 채택된 주제명표목**으로 안내한다. 같은 뜻을 가진 표현이 여러 개여도 자료에는 선정된 표목을 사용하므로, 이용자가 다른 표현으로 접근했을 때 실제 검색에 사용할 표목을 알려 주는 것이다.

③ X: 도보라참조는 **채택된 주제명표목 → 관련된 다른 채택 주제명표목**을 연결한다. 상위·하위 주제나 연관된 주제로 탐색 범위를 넓히도록 돕는 참조이므로, 연결 대상을 '채택되지 않은 주제명'으로 설명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④ O: 일반참조는 특정 표목 하나를 직접 가리키는 대신 **일단의 표목이나 범주**로 안내한다. 관련 표목들을 하나씩 열거하기보다 공통된 범주나 표목 구성 방식을 설명하여 그에 속하는 표목들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NoteBase

문 14. 한국목록규칙 제4판의 기술규칙 중 각종 자료의 표제관련 기술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도자료의 경우, 자료의 어느 부위에도 표제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대상 지명을 나타내는 어구가 포함되도록 하여 본표제를 보기한다.

② 고서자료의 경우, 다권본으로 이루어진 자료는 첫째 권 또는 첫 책의 권수제면(卷首題面)이나 표제면을 기준으로 본표제를 기술한다.

③ 악보자료의 경우, 식별상 필요한 숫자나 문자가 표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본표제의 일부로 기술한다.

④ 화상자료 중 복제화는 원화의 표제를 본표제로 기술하고, 원화의 일부를 복제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부기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복제화에 자체 표제가 있으면 **그 복제화의 표제**를 본표제로 기술한다. 원화의 표제를 일률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복제물 자체를 기술하는 원칙과 맞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지도자료의 어느 부위에도 표제가 없으면 **대상 지명을 포함한 본표제**를 보충하여 기술한다. 지도에 나타난 지역을 표제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기'는 자료에 없는 정보를 보충하여 적는다는 뜻이다.

② O: 다권본 고서의 본표제는 **첫째 권 또는 첫 책의 권수제면이나 표제면**을 기준으로 기술한다. 권수제면은 본문 첫머리에 서명이 나타나는 면이다. 여러 권으로 이루어진 자료 전체의 본표제를 정할 때 첫 권이나 첫 책을 기준으로 삼는 규칙이다.

③ O: 악보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숫자나 문자가 **표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본표제에 포함한다. 이를 생략하면 어떤 곡의 악보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부가 정보로 보아 제외하지 않는다.

④ X: 복제화는 원화가 아니라 복제물 자체를 기술 대상으로 하므로, 자체 표제가 있으면 **복제화 자체의 표제**를 본표제로 기술한다. '원화의 표제를 본표제로 기술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원화의 일부를 복제했다는 사실을 부기하더라도 본표제의 채택 기준이 원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5. 다음은 한국목록규칙 제4판과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으로 작성한 레코드의 일부이다. 바르게 입력된 필드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020	▼a978-89-460-5625-1 ▼g93530 :▼c₩25000
245	▼a현대 도시계획의 이해 :▼b환경공학적 접근 / ▼d존 버틀러 지음,▼e김철수,▼e이영희 옮김
260	▼a파주 :▼b인쇄문화,▼c2013
300	▼a395 p. ; 삽화 :▼c23 cm + ▼e전자 광디스크 1매
650	▼a도시계획

① 020, 245

② 260, 650

③ 020, 260, 650

④ 245, 300, 65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ISBN에 쓰이는 하이픈은 출력할 때 표시하므로 레코드에는 **하이픈 없이** 입력한다. 저자와 번역자처럼 **역할이 다른 책임표시** 사이는 쉼표가 아니라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020 X: 국제표준도서번호를 입력하는 필드이다. ▼a에 ISBN을 입력할 때는 **하이픈을 직접 넣지 않는다**. 따라서 '▼a978-89-460-5625-1'은 '▼a9788946056251'로 고친다. ▼g의 부가기호와 ▼c의 가격을 입력한 것은 문제가 없다.

245 X: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을 입력하는 필드이다. 존 버틀러는 저자이고 김철수·이영희는 번역자이므로, 저자와 첫 번역자 사이는 **쌍반점(;)**으로 구분해야 한다. 책임표시 부분은 '▼d존 버틀러 지음 ; ▼e김철수, ▼e이영희 옮김'으로 고친다. 김철수와 이영희는 역할이 같으므로 두 사람 사이의 쉼표와 ▼e 반복은 유지한다.

260 O: 발행사항을 입력하는 필드로, ▼a는 발행지, ▼b는 발행처, ▼c는 발행년이다. '파주 : 인쇄문화, 2013'을 각각 대응하는 식별기호에 입력했으며, 발행처 앞의 쌍점(:)과 발행년 앞의 쉼표도 바르게 사용했다.

300 X: 형태사항에서 ▼a는 수량, ▼b는 기타 물리적 특성, ▼c는 크기, ▼e는 딸림자료를 나타낸다. 제시된 레코드는 **삽화 앞의 ▼b가 빠졌고**, 삽화 앞과 크기 앞의 구두점도 서로 바뀌었다. '▼a395 p. : ▼b삽화 ; ▼c23 cm + ▼e전자 광디스크 1매'로 고친다. 쌍점(:)은 기타 물리적 특성을, 쌍반점(;)은 크기를, 덧셈표(+)는 딸림자료를 앞 내용과 구분한다.

650 O: 일반주제명을 주제명부출표목으로 입력하는 필드이다. 이 자료의 주제인 '도시계획'을 일반주제명 식별기호인 ▼**a**에 입력했으므로 형식에 맞는다.

바르게 입력된 필드는 260과 650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6. 다음은 한국목록규칙 제4판과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으로 작성한 레코드의 일부이다. ㉠과 ㉡에 들어갈 표시기호는?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245 ▼a한국 고전소설 연구사▼h[전자자료] /
▼d최보라 지음
300 ▼a전자책 1책 (263 p.)
(㉠) ▼a같은 내용으로 단행본도 있음
(㉡) ▼a최보라.▼t한국 고전소설 연구사.▼d서울 : 한국
도서관협회, 2010

① ㉠: 530, ㉡: 775

② ㉠: 530, ㉡: 776

③ ㉠: 538, ㉡: 775

④ ㉠: 538, ㉡: 776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같은 내용의 인쇄본이 있음을 문장으로 알리는 주기는 **530**에 기록한다. 그 인쇄본의 저자·서명·발행사항을 기술하여 전자책과 연결하는 저록은 **776**이다.

빈칸별 해설

㉠ 530: 245의 '[전자자료]'와 300의 '전자책 1책'을 보면 목록 작성 대상은 전자책이다. '같은 내용으로 단행본도 있음'은 이 전자책과 **물리적 형태가 다른 자료도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문장이므로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주기'인 530에 기록한다. 538은 운영체제나 필요한 장비 등 시스템 사항을 기록하는 필드이므로 이 주기에 맞지 않는다.

㉡ 776: 최보라의 이름, '한국 고전소설 연구사'라는 서명,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0'이라는 발행사항은 앞에서 언급한 인쇄본을 식별하는 서지정보이다. 전자책과 같은 내용을 담은 **다른 물리적 형태의 자료를 연결**하므로 '기타형태저록'인 776에 기록한다. 여기서 ▼a는 기본표목, ▼t는 표제, ▼d는 발행지·발행처·발행년을 나타낸다. 775는 이용가능한 다른 판본에 관한 '이판저록'으로, 이 문항처럼 전자책과 인쇄본의 형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776과 구별한다.

따라서 ㉠은 530, ㉡은 776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7.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의 서지레코드에서 FRBR의 표현형 식별을 위한 언어 정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① 리더/00-04

② 005 필드

③ 007 필드/01

④ 008 필드/35-37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008 필드의 **35-37자리는 자료의 언어**를 부호로 기록한다. 언어는 같은 저작의 서로 다른 표현형을 구별하는 속성이므로 표현형 식별에 활용할 수 있다.

공통 해설

FRBR의 표현형은 저작이 문자나 소리 등의 형식으로 지적·예술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언어는 표현형의 속성**으로, 예를 들어 같은 소설의 한국어 원문과 영어 번역문은 같은 저작에 속하더라도 서로 다른 표현형이다.

KORMARC 통합서지용의 008 필드는 자수위치에 따라 정보의 의미가 정해지며, **35-37자리에 언어 부호**를 기록한다. 따라서 서지레코드에서 이 위치의 정보를 읽으면 자료가 어떤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 언어를 기준으로 표현형을 식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NoteBase

문 18. 번역서에 대한 아래의 예시를 MARC 형식으로 서지레코드를 작성할 때, 원본의 표제를 기술할 MARC 21과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의 표시기호를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대상 자료: 「위대한 개츠비」
F. Scott Fitzgerald 지음 강슬기 번역
원본의 표제: 「The Great Gatsby」

① 240 - 240
② 240 - 246
③ 246 - 240
④ 246 - 246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번역서의 원표제를 MARC 21에서는 **240 통일표제**에, KORMARC 통합서지용에서는 **246 여러 형태의 표제**에 기술한다. 같은 원저작의 표제라도 두 형식에서 사용하는 필드가 다르다.

대응 관계 해설

MARC 21: 240은 통일표제를 기술하는 필드이다. 통일표제는 서로 다른 표제로 나온 동일 저작을 하나로 모아 식별하기 위해 선택한 표제이다. 이 예시처럼 저자를 기본표목으로 하는 번역서는 원저작의 표제를 통일표제로 삼아 **240**에 기술한다. 따라서 한국어 번역서의 표제인 '위대한 개츠비'와 구별하여 원저작의 표제 'The Great Gatsby'를 이 필드에 기술한다.

KORMARC 통합서지용: 246은 여러 형태의 표제를 기술하는 필드이며, **번역서의 원표제도 여기에 포함**된다. 'The Great Gatsby'는 번역 대상 원본의 표제이므로 246에 기술하고, 제2지시기호 9로 원표제임을 나타낸다. 원표제라는 이유로 MARC 21과 똑같이 240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MARC 21과 KORMARC 통합서지용의 대응은 240 - 246이며, ②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특성사항의 예시 중 자료특성사항을 기술한 것이 아닌 것은? (단,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관현악총보

② 전자 데이터 (1파일 : 550레코드)

③ 축척 1:50,000 ; 등거리방위도법

④ 녹음 릴 1개 (31분)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녹음 릴 1개 (31분)'은 녹음매체의 종류와 수량, 재생시간을 나타내므로 **자료특성사항이 아니라 형태사항**에 기술한다.

선지별 해설

한국목록규칙 제4판의 자료특성사항은 자료유형에 따라 악보의 종류, 전자자료의 자료내용 및 크기, 지도자료의 축척과 도법 등을 기술하는 영역이다. 매체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록하는 형태사항과 구별한다.

① O: '관현악총보'는 관현악의 여러 성부를 함께 나타낸 악보의 종류이다. 악보가 총보인지 파트보인지 등을 구별하는 **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료특성사항에 해당한다.

② O: '전자 데이터'는 전자자료의 자료내용을, '1파일 : 550레코드'는 그 크기를 나타낸다. 전자자료의 자료특성사항에는 이러한 **자료내용 및 크기**를 기술하므로 해당 예시는 자료특성사항이다. 여기서 파일·레코드의 수는 저장매체의 개수가 아니라 전자자료에 수록된 데이터의 규모를 나타낸다.

③ O: '축척 1:50,000'은 지도상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을, '등거리방위도법'은 지도를 평면에 표현하는 도법을 나타낸다. 지도자료의 **축척과 도법**은 자료특성사항에 기술한다.

④ X: '녹음 릴'은 특정자료종별을, '1개'는 수량을, '(31분)'은 재생시간을 나타낸다. 이는 녹음자료의 **형태사항**에 기술하는 내용이며, 자료특성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20. DC로 작성된 아래의 레코드를 MODS로 변환할 때, ㉠~㉤에 해당하는 MODS의 상위요소로 옳은 것은? (단,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 <dc:title>경제의 원칙과 실제</dc:title>
㉡ <dc:creator>박경제</dc:creator>
<dc:subject>경제학</dc:subject>
㉢ <dc:date>2015</dc:date>
㉣ <dc:type>텍스트</dc:type>
<dc:identifier>ISBN 978-89-4039-132-1</dc:identifier>
<dc:language>한국어</dc:language>

① ㉠ – accessCondition
② ㉡ – author
③ ㉢ – physicalDescription
④ ㉣ – typeOfResource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의 dc:type에 기록된 '텍스트'는 자료의 유형을 나타내므로, MODS의 **typeOfResource**에 대응한다. MODS에서는 이 유형을 'text'로 표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의 dc:title은 '경제의 원칙과 실제'라는 표제 정보이다. MODS에서는 상위요소 **titleInfo** 아래의 title에 표제를 기록한다. accessCondition은 자료의 접근·이용 조건이나 권리 정보를 나타내므로 표제의 대응 요소가 아니다.

② X: ㉡의 dc:creator는 자료를 창작한 '박경제'를 나타낸다. MODS에서는 상위요소 **name** 아래의 namePart에 이름을 기록하고, 창작자나 저자라는 역할은 name 아래의 role로 표현한다. 따라서 상위요소는 author가 아니라 name이다.

③ X: ㉢의 dc:date에 기록된 '2015'는 날짜 정보이므로 MODS의 **originInfo** 아래에 있는 날짜 하위요소에 기록한다. physicalDescription은 자료의 형태·분량 등 물리적 특성이나 매체 정보를 기술하는 요소이므로 날짜 정보의 대응 요소가 아니다.

④ O: ㉣의 dc:type은 자료의 유형을 나타내며, 값인 '텍스트'는 MODS의 **typeOfResource**에 'text'로 대응한다. typeOfResource는 텍스트·지도·음성자료 등 자료의 기본 유형을 구분하는 상위요소이다.

NoteBase